

## 책머리



River & Culture

# “수자원 정책방향”



권진봉 | 우리협회 부회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kyeonjb@moct.go.kr)

최근 지구촌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여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5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깨끗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높아져 풍부하면서도 청결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댐·광역상수도·대체수자원 등을 통한 물 이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환경 조성, 수자원정보와 기술 및 제도의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물이용의 안정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지역별 물 부족량의 누계는 약 8억m<sup>3</su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물이용의 안정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구축,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대체수자원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댐 건설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탄강홍수조절댐 등 5개 댐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가동율 제고(’06년 60%→’11년 72%)를 위한 광역급수체계 구축사업과 물부족 우려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전남남부권 등 2개 사업을 준공하고 한강하류권 등 10개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사업은 환경부와 의 수도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말까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보완 수립하고 14개 시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전국 320개의 관측망 운영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해수담수화 등 친환경 대체수자원은 상수도 혜택 소외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원다변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수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치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홍수관리제도를 정비하고 홍수조절지·저류지·방수로 건설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해방지사설 구축과 더불어 홍수에보체계를 개선 중입니다.

우선, 도시홍수관리제도의 정비는 불투수면의 증가 등 도시홍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내 하천, 하수도, 펌프장, 각종 우수침투시설 등을 연계정비하기 위한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특정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역 중심의 종합치수를 위해 전국 12대강 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계획이 마련된 낙동강 등 5개 유역에 대하여



는 법정부처원의 종합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강 등 나머지 7개 유역은 '08년까지 계획수립 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수해방지사설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하천정비사업에 총 1조647억원을 투입하여 740km의 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존 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10년까지 23개댐에 대한 완료를 목표로 금년까지 영천댐 등 4개댐을 준공하고 소양강댐 등 9개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홍수예보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강우관측이 가능하도록 전국 11개소에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도록 홍수위험지도 제작하는 한편 홍수관련 정보를 신속히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천정보전광판출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셋째,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조성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하천환경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하천환경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댐 주변지역에 친수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정비를 위해 하천구역에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하천복개를 금지하는 등 하천환경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4월 하천법을 개정하였으며, '08.4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본격 확대를 위해 '98부터 추진해 온 7개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금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평 나비도시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은 2011년까지 전국 50개 지구에 1조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6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은 수요조사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댐 주변지역에는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댐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암댐 등 8개 댐에 대하여 생태공원조성 및 물문화관 증축 등을 추진 중이며, 건설 중인 5개댐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10% 이상을 인공습지, 어도 등 환경시설 설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넷째, 수자원 정보·기술 및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며, 물관리를 둘러싸고 부처간, 지역간 갈등이 빈발하는 등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 정보·기술 수준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수자원조사,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 통합관리 및 하천관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및의 사결정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자원 정보 분야는 기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 및 정책지원시스템을 '11년까지 구축 중이며, 기초조사 선진화를 위하여 첨단계측기 도입, 조사전문성 강화, 조사지침 제도화 등 수문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 개발사업(2001~2011)' 등을 통해 수자원분야의 기술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수자원 관리 제도는 하천환경관리강화, 국가하천비율 상향, 수자원 기초조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하천법을 개정하였으며, 물관리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수자원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와 가뭄이 더 잦아지고 강도가 커지는 현상 외에도 댐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고 용수수요 시기가 변화할 것이라는 등의 방향성은 언급되고 있으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과 연관되어 물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자원정책에 대하여 협회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한국하천협회 부회장 권진봉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